

전남대·조선대 “취업률 1위” “장학금 팍팍”

우수 학생 붙잡기 인간힘

입시설명회 경품 추첨도

‘공기업 취업률 1위, 사법시험 합격자 지방대학 중 2위...’ 취업지원 위한 서울사무소 개소, 졸업생 4천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호남권 1위

호남지역 대표 국립대와 사립대인 전남대와 조선대가 입시설명회에서 우수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한 자랑거리다. 대학의 역사나 위상, 발전방향, 학문적인 업적들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취업률이나 장학금 등 현실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게 더 잘 먹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지난 달 30일 대강당에서 전남고와 금호고, 운남고 등 고교 3년생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와 본 전남대학교’라는 제목으로 예비대학을 가졌다.

학생들의 맘을 뺏기 위해 행사도 중 화장품, MP3,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추첨행사와 장기 자랑을 개최했다. 또 음악교육과 선배(?)들의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판소리 랩 등 행사에 이어 전남대의 자랑거리를 쏟아냈다.

행사 도중 사회자가 “미래도 서울로 가실래요?”하고 묻자 학생들은 “예”라고 외쳤다.

그러자 사회자는 우리 대학은 공기업 취업률 1위, 사법시험 합격자도 올해는 27명이나 돼 지방대학 중 2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대는 신종플루를 염려해 대규



즐거운 예비대학

지난달 30일 전남대강당에서 열린 예비대학에 참여한 고교 3학년생들이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모 설명회 대신 고등학교를 직접 순회하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대학은 올 연말까지 서울에 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위한 취업정보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연중·운영한다. 학생들의 수도권 취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다.

조선대의 고3 인재 유인책은 뭐니 뭐니해도 ‘CU Leader 장학생’으로 대변된다. 세 등급으로 나뉘는 CU Leader 장학생은 성적에 따라 4년간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고, 해외 연수가 지원되는 과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교수와 장학생 간 1대 1 결연을 통한 학사·취업·진로 상담을 진행

하는 등 공부 및 취업을 위한 논스톱 서비스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또한 해외유학을 가지않고도 원어 수준의 영어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집중교육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에 대한 자랑도 빠지지 않는다. 기초과학부, 글로벌법학과,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CU Leader 장학생들에게 기초에서 고급 수준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통해 원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부는 미래 의치학전문 대학원 입학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

어 고3생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대 역시 마지막으로 내놓는 자랑거리는 취업률이다. 졸업생 4천명 이상의 대형 대학중 취업률 광주·전남지역 1위, 전국 17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재학 중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정도와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 풍조를 감안해 높은 취업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 정보 창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정상화 사분위서 합의”

안병만 교과, 정이사 체제 전환 지지 표명

“폭력사태 엄격 대응”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선대 정상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조선대 정이사 선임이 오는 10일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제7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민주당·광주 서구을)의 조선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선대를 반드시 정상화할 것이며, 사학분쟁조정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구 재단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5차례 교과부의 의사 청취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구 재단측이 정이사 선임을 방해하고 있고, 다음 회의(10일) 이전까지 정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정이사 몫을 뺏아 나머지 정이사를 파송결정하는 것이 합당하

다”며 추천권 행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사분위는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과부도 그런 판단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 달 26일 회의시 정부측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 전원 합의로 선임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되지 못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회의를 개최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사분위 회의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사분위와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다음에는 이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달 26일 모 단체 인사 30여명이 사분위 회의장에 입장하는 일부 사분위원들에게 오물 등을 투척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지난 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7967) 김중두



여수 해경 실종 어민 수색

지난달 29일 오후 3시50분께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 인근 해상에서 어민 박모(69)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수해양경찰이 이를 쫓아 수색 작업을 벌였다.

박씨는 2.45t급 연안복합어선에 혼자 타고 거문도에서 삼치 잡이에 나섰다 실종됐으며,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에 의해 박씨의 빈 배만 발견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노조 지부장이 역대 취업사기

13명에 1억원 받아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달 30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준비생들로 삼상적으로 돈을 받아챈 광주지부장 이모(3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공단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업준비생 13명(34)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30명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공공시설이 완공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300만~1천250만원을 받아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들에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유혹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보 같이 가”

70대 노인 부인 숨지자 목매

부인의 사망을 괴로워하던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북구 중흥동 송모(여·83)씨의 2층 주택에 세들어 사는 K(71)씨가 자신의 안방에서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집주인 송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전남 부인 P(75)씨가 노환으로 숨지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 불편한 K씨는 수년 전부터 부인의 도움을 받아 바깥 출입 등을 해왔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좋아하는 여성들에 음란사진 보내

생다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달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휴대전화에 음란사진을 보낸 김모(4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김씨는 지난 달 3일 새벽 A(여·44)씨의 휴대전화에 음란사진을 보낸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두 명에게 모두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자신이 흡모하던 A씨와 옛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음란사진을 전송했으나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범행이 ‘털미’.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장흥군, 역시 ‘법조의 고장’

올 사시 7명 최종 합격 법무장관 등 배출 화제

장흥군이 올해 사법시험에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법조의 고장’이란 명성을 이어갔다.

지난 달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5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장흥 출신은 7명에 이른다.

합격자는 장흥 관산 출신의 이응운(32)씨를 비롯, 윤성진(24·

관산), 김근희(29·용산), 문경재(30·용산), 김정석(29·용산), 김동욱(24·유치), 이인걸(23·회진)씨 등이다.

장흥군은 최근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명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의 걸출한 인재들을 잇따라 배출했다.

또 매년 4~5명의 사법고시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해 ‘법조의 고장’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정홍=김용기자 kykim@

‘현대판 마패’ 검찰 배지 단다

압수수색·체포 때 사용

앞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된다.

이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동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배지는 압수수색·체포·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대호온돌나라

온돌나라는 지금이 구입 적기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대호온돌나라 ☎ 061-360-1902

아이엘리시아

눈썹, 미용, 피부, 헤어,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링, 웨딩, 파티, 행사, 이벤트, 사진, 영상, 공연, 방송, MC, DJ, MC, DJ, MC, DJ

082-671-1199